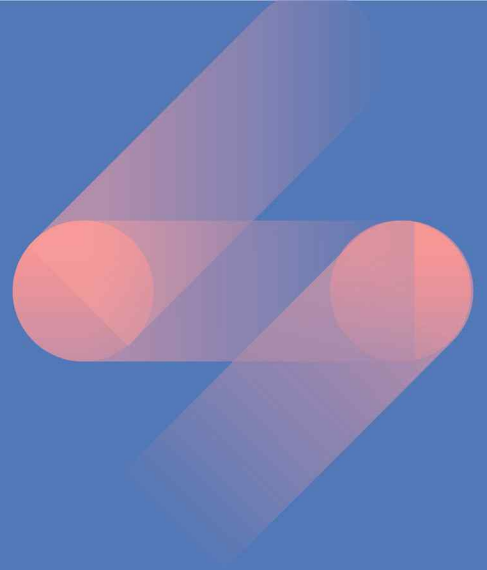


2024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02

제 2 부

주요 언론조정사례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01 2024서울조정2335·2336/2337·2338 각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열람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신청인이 임무 수행 중 불미스러운 이유로 납북되었다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클립 영상을 열람차단하고 OTT에 업로드된 영상 말미에 자막 형식의 반론보도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일명 ‘CKW 사건’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동에서 정보사 소속 블랙 요원이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사건을 의미한다. 정보사는 관련 조사에서 해당 요원이 특수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1차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조사 중 해당 요원이 조선족 여성과 교류하던 중 신분이 노출됐고, 이 여성이 밀수 혐의로 북한에 붙잡힌 오빠를 구명하기 위해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귀환한 해당 요원은 기밀 유출은 없었고, 북한 측의 심문 과정에서 역정보를 흘리면서 탈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취조과정에서 가족의 안위 등에 대한 북한 측의 협박으로 김일성·김정일 초상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였고 중국 내 블랙요원 네트워크와 주요 거점 정보를 누설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청이유

보도에서 납북된 블랙 요원으로 언급된 신청인은 방송에서 조선족 여성에게 신분을 노출해 납북되었다고 묘사됐으나, 실제로는 공작원으로 양성 중이던 조선족 남성이 불법 어로행위를 적발당해 처벌받게 되자 면책을 위해 신청인을 밀고하면서 신청인이 납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프로그램에서는 신청인이 ‘귀국 이후 조사 과정’에서 역공작 개념의 이중스파이임을 실토했다고 했지만, 신청인은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 조직에 인계된 이튿날 바로 역공작 임무를 맡아 돌아왔음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오로지 납치 당시 보유하던 메모장의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했을 뿐이라며, 귀국 후 별도의 건강 체크나 치료 없이 바로 당국의 조사에 임하였다고도 덧붙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전국 방송에 실명을 노출했고 신청인의 납북 사건을 개인적인 일탈에서 비롯된 것처럼 묘사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매체별로 정정보도와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을 취재한 기자 출신 패널의 취재 사항을 바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서 취재 당사자를 통해 해당 내용에 잘못된 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수차례나 되는 피신청인의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모두 사양했음에도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실명을 밝히며 관련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해당 내용을 방송하기 며칠 전에 이미 타 언론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을 밝혔는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방송을 감행했다는 점을 짚어 피신청인 방송에 악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타 언론사 보도를 통해 신청인과의 입장 차를 알게 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재차 확인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았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부는 미인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양 패널들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을 자막으로 옮겨 시청자들이 미인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유튜브 및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인 관련 클립 영상을 열람 차단하고 인터넷 및 OTT 영상에 반론보도문을 자막 형태로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들(①·②)은 열람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 ○○ ○○○ ○○○ 000회 ‘CKW사건’ 관련

본문내용: 본 방송은 지난 9월 29일 정보사의 △△△ □□이 북한에 납치당한 이유가 미인계 때문이며, 자기 가족을 구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블랙요원 네트워크에 대해 누설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돌아온 후 정보사 조사과정에서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탈출했다고 진술했다가 강도 높은 취조를 받고 역용되었음을 실토했다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 □□은 “북한에 납치당한 이유는 치정과 관련이 없고, 중국 남성 공작원의 배신으로 인한 것이며, 중국 내 다른 블랙요원 네트워크에 대해 누설한 사실이 없고, 대한민국 측에 인계된 후 역공작 임무를 띠고 탈출하는 방법으로 돌아왔다고 즉시 보고하였으며, 국정원 및 기무사에서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피랍과정을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 ②의 영상 및 [별지]의 항목 6의 영상 뒷부분에 반론보도문을 자막 형태로 보도한다.

열람차단

- [별지]의 항목 5의 방송사 홈페이지의 클립 영상들을 모두 열람 차단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별지]의 항목 2, 3, 4의 유튜브 영상들을 모두 열람 차단한다.

[별지] 조정합의서 이행 대상 목록

※ 별지의 이행 대상 목록은 양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열람차단되었음을 고려하여 주소(URL)을 표기하지 않음

1. 방송사 홈페이지

순번	제목	일시
1	○○ ○○○ ○○○ 000회	2024.XX.XX

2. 유튜브채널 ◇◇◇◇ ◇◇◇◇

순번	제목	업로드일시
1	[#○○○모아보기] 北 평양까지 끌려간 블랙 요원! 한국에 돌아오기까지의 △ □□의 여정은? 사건 뒤 숨겨진 반전은? ○○ ○○○ ○○○ 000회	2024.XX.XX
2	죽은 줄 알았던 △ □□! 6개월만에 연락온 그에게 무슨 일이?! ○○ ○○○ ○○○ 000회	2024.XX.XX
3	△ □□이 북한에 납치된 이유는 미인계 때문?? 평양까지 끌려간 블랙 요원, 6개월 후 탈출 성공?! ○○ ○○○ ○○○ 000회	2024.XX.XX
4	북한 영변 핵 시료를 최초로 가져온 △ □□?! 돌과 흙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증거를 전 세계에 알리다 ○○ ○○○ ○○○ 000회	2024.XX.XX
5	북한식 블랙 요원 활용법? △ □□, 북한의 협박에 이중간첩이 되다? ○○ ○○○ ○○○ 000회	2024.XX.XX
6	[예고] XX년 전 북에 블랙 요원 기밀 문건 유출 사건이 또 있었다? 일명 'CKW사건' ○○ ○○○ ○○○ 000회	2024.XX.XX
7	[#◎◎◎] △ □□이 사라졌다! 비밀 첩보 요원을 납치 협박해 기밀문서를 빼간 북한 CKW 사건의 전말 #○○○ 1시간 몰아보기	2024.XX.XX

3. 유튜브채널 ☆☆☆ ☆☆☆☆☆

순번	제목	업로드일시
1	[#▽▽▽] 국가 안보 大위기 블랙 요원 신원 정보 노출 사건의 전말은? #○○○○○○○○○ 000회	2024.XX.XX

4. 유튜브채널 ○○○○○○: ○○○ ○○○○○○ & ○○○○○○

순번	제목	업로드일시
1	[#▽▽▽] 국가 안보 大위기 블랙 요원 신원 정보 노출 사건의 전말은? #○○○○○○○○○ 000회	2024.XX.XX
2	[#◁◁◁] 국가 정보망 붕괴 사태!! 블랙 요원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협박해 정보를 빼내는 북한! #○○○ 000회	2024.XX.XX

5. 방송사 홈페이지(인터넷뉴스서비스) 클립 열람차단

순번	업로드일시	제목
1	2024.XX.XX	[#▷▷▷▷] 북한 핵 실험 증거를 찾아낸 블랙 요원이 북한에 납치된 이유는? 미인계 때문?!
2	2024.XX.XX	[#□□□모아보기] 北 평양까지 끌려간 블랙 요원! 한국에 돌아오기까지의 △ □□의 여정은? 사건 뒤 숨겨진 반전은?
3	2024.XX.XX	북한식 블랙 요원 활용법?! △ □□, 북한의 협박에 이중간첩이 되다?
4	2024.XX.XX	△ □□이 북한에 납치된 이유는 미인계 때문?? 평양까지 끌려간 블랙 요원, 6개월 후 탈출 성공?!
5	2024.XX.XX	죽은 줄 알았던 △ □□! 6개월만에 연락은 그에게 무슨 일이?!
6	2024.XX.XX	북한 영변 핵 시료를 최초로 가져 온 △ □□!? 물과 흙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증거를 전 세계에 알리다

6. 반론보도문 편집수정본 게시

플랫폼	제목
방송사	○○ ○○○ ○○○ 000화
애플tv	○○ ○○○ ○○○ 000화
Wavve	○○ ○○○ ○○○ 000화
TVING	○○ ○○○ ○○○ 000화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02 2024경기조정182·183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유형	개인
피신청인 매체유형	인터넷신문
처리결과	조정성립(정정보도, 반론보도)

공공기관 간부가 자신의 배우자를 해당 기관에 채용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공공기관 간부인 A가 자신의 배우자 B를 채용, 근무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A는 200만 원 정도의 낮은 기본 급여 때문에 응시자가 없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정해 채용하였다고 해명했으나,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B에게 지급된 평균 급여는 268만여 원으로 확인됐다. 또 구체적으로 기본급과 수당 지급 사실을 밝혔던 지난해 직원 모집 공고와 달리, B를 채용할 당시 시급 12,000원이라고만 공고한 것은 다른 응시자의 지원을 막고 B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

이 외에도 B는 6월부터 12월까지 평균 3.2일을 결근했는데 8월에는 6일이나 결근하기도 했다.

신청이유

신청인은 배우자 B가 담당했던 업무는 지역 농특산물 매장을 관리하는 것인데 낮은 급여와 주말에 출근하고 주중에 쉬어야 하는 근무 여건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채용 공고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도한 B의 평균 급여는 전체 근무 기간(2023년 4월 ~ 2024년 2월)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급여가 높았던 특정 시기를 선택해 평균 급여액을 산출했으므로 잘못되었으며, 채용 공고별로 급여 액수와 같은 안내 사항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근무지 및 업무 영역의 차이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단기 일용직 등 채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B가 채용됐던 판매사원직의 경우 채용공고가 4회 이루어졌고 공고사항에는 시급 12,000원으로 표시하거나 별도 급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기본급 표시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B가 타 매장으로 파견되어 근무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원 근무지에 출근체크가 안 됐다는 사실만을 들어 B가 결근했다고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신청인은 해당 보도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협동조합장 등 업무 관련자들과의 업무 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정정보도와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했으며, 신청인이 취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자료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배우자의 급여와 기간 산정 부분은 정정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취재에 비협조적이었던라도 보도에서 반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추후에라도 반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신청인은 중재부 조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중재부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함께 게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이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뉴스를 보도해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를 새 영상으로도 게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 ○○○○ ○○○○○ ○○본부 본부장인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B 씨를 해당 기관에 채용, 근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본부장 A 씨는 “기본 급여가 2,060,740원으로 특혜 채용이 아니라 낮은 급여 때문에 응시자가 없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정해 채용한 ‘사정 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배우자 B 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2,680,000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 ○○○○○본부는 두 차례에 걸친 직원 모집 공고에서는 기본급 2,500,580원과 2,350,580원을 비롯해 각종 수당이 있음을 밝혔지만 배우자 채용 당시에는 시급 12,000원이라고만 공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다른 응시자의 지원을 막고 자신의 배우자 채용을 위해 제대로 된 급여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채용된 배우자는 근무도 불성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평균 3.2일 결근하였고 심지어 8월에는 6일이나 결근하기도 했습니다. **[후략]**

조정성립사항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 ‘○○○○○○○○○○본부 본부장 배우자 채용’ 관련

본문내용: 본지는 2024년 8월 14일 <○○○○ ○○○○본부 ‘이해충돌방지법’ 논란 - 본부장 “배우자에게 사정해 채용” 황당한 해명> 제하의 기사에서, 본부장의 배우자 채용과 관련하여 “낮은 급여 때문에 응시자가 없었다”는 본부장의 해명과 달리 평균 268만여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되었고, 채용 공고 당시 시급만 표기하는 등 제대로 된 급여 내용을 밝히지 않아 다른 응시자의 지원을 막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배우자가 짚은 결근으로 근무도 불성실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의 배우자는 실제 총 9개월간 근무하면서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 21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해당 본부장은 “기본급이 표시된 공고는 ‘본부 사무직원’과 ‘△△△카페 매니저’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를 채용한 ‘□□□□□□□□ 판매사원’은 비정규직 및 단기 일용직에 해당하여 업무 영역이 전혀 다르기에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배우자의 근무 불성실 역시 △△△카페 파견근무와 연차 사용 등을 결근으로 오인한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동영상 플랫폼 조치 포함)

- 피신청인은 <◇◇◇방송> ◇◇◇뉴스면에 24시간 동안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뉴스목록 1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나타나게 하며, 제목과 본문은 <◇◇◇방송>의 통상적인 기사의 형태에 따른다. 24시간 게재 이후에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방송>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가 <◇◇◇방송>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원 조정대상보도와 구별될 수 있도록 볼드, 음영, 박스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한다.
- ※ 본 사건의 경우 합의사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신청인이 ‘통상적인 기사의 형태’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신청인이 유튜브를 통해 뉴스 보도를 이어왔으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가 동영상 콘텐츠로도 제작 및 게재되었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03 2024광주조정84/85 각 정정청구

신청인 유형	조합
피신청인 매체유형	방송, 방송사닷컴(인터넷뉴스서비스)
처리결과	조정성립(반론보도, 동영상 플랫폼 조치)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설치를 추진한 커뮤니티 시설이 부실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설계 변경 내역을 통보하지도 않아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지역방송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콘텐츠뿐만 아니라 본사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콘텐츠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진 사례

보도내용

A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조경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커뮤니티 시설 ‘티하우스’는 설치에 2억여 원이 소모되었음에도 수도시설이 없고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인 수준이다. 그밖에 인공산과 연못 등 조경시설은 설계 도면보다 면적이 줄었고, 수경시설 바닥은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누수의 원인이 됐다. 조합은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했으며, 준공 시 지급해야 하는 잔금을 미리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확인되어 논란은 확산할 전망이다.

신청이유

신청인 조합은 입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티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닌 조경시설로서 대체로 상하수도 시설이 없다며 이를 설치하게 되면 부가적인 행정절차 및 운영경비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예비 입주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수도 설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경시설은 당초 설계된 형태에서 타원형으로 변경되었을 뿐 면적이 축소되지는 않았고, 지하 주차장 누수 현상은 수경시설 바닥 방수의 문제가 아닌, 조경시설 관련 전기 배관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그에 대한 보완 조치를 신속히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및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조경사업 안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저가 입찰자로 결정하기로 의결한바, 입찰절차과정에서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잔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상호 계약에 따라 ‘잔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인데 마치 잔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02
주요 언론조정사례 -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신청인 조합이 사업 변경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은 중간 통보가 아닌 준공 시 일괄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시청 담당과에 확인하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가 왔으나 사정상 취재에 응하지 못해 다시 취재 요청이 올 것이라 예상했으나 재취재는 없었고, 관련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제보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자격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피신청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매체별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주자 대표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제기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한 만큼 업체 선정이 정당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지자체에 사업 변경 사항 미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허가 대상인지 준공 후 통보 대상인지는 쟁점이 아니고 조합이 지자체에 '사업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미 지자체 조사팀도 '경미한 변경이지만 통보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조합에 공식 통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수 조합원들은 티하우스에 수도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시공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았으며, 시설물의 규격 축소 시공 및 지하 주차장 누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조합원이 주장하는 바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조정 심리 과정에서 반론을 취재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피신청인은 조합장과 통화하고 관련 논란에 대해 취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조합장이 공식 인터뷰 형식을 거절해 기자 멘트 형식으로 조합의 입장을 처리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재부는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신청인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짚은 후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반론보도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해당 보도가 전국 방송으로 송출된 점을 감안해 지역방송의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본사 유튜브 채널에도 반론보도가 게시되도록 조치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앵커]

요즘 아파트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죠. ○○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최근 6억 원을 들여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었는데 부실 공사 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략]**

[김△△ 기자]

000여 세대 규모의 ○○읍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단지 사이 컨테이너 크기의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지어진 ‘티하우스’입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인데 이마저도 없습니다.”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데 정작 내부에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입니다. 수전도 없는 이 시설을 짓는 데 2억 원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김□□/조합원]

“커피를 마시려면 수도시설도 돼 있어야 하고 하수시설도 돼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 기자]

돌을 쌓아 만든 작은 인공산과 연못 등 조경시설은 설계 도면보다 면적이 40% 이상 축소됐습니다. 바닥 방수공사도 제대로 안 돼 지하주차장에 누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휴게공간과 조경시설 등 커뮤니티 특화사업에 들어간 조합비는 6억 3천8백만 원.

주민들은 공사업체와 함께 관리, 감독을 맡은 지역주택조합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긴급공사라는 이유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고, 준공 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이 미리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합원]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시설물이나 ‘티하우스’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김△△ 기자]

공사를 맡은 업체는 설계대로 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공사 업체 관계자(XX월 XX일 주민설명회)]

“(조합원) 집에서 커피 타다 먹으라고요?”

“(공사업체 관계자) 아, 그거는 전기 부분하고 수전 부분하고, 소방 부분은 전체 계약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김△△ 기자]

조합은 뒤늦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잔금을 선지급한 건 물품 납부 계약일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변경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도 확인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제6장

동영상 플랫폼 조치 사례

조정성립사항

반론보도문

보도제목: [반론보도문]

본문내용: 2024. 9. 18. <물 없는 아파트 '티 하우스'...6억짜리 편의시설 논란> 보도에 대해 해당 아파트지역주택조합은 티 하우스의 경우 운영경비 추가 부담 문제 등으로 수도시설 없이 설치하기로 협의했던 것이고, 조합이 추진한 조정시설공사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추후 변경된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TV <☆☆☆☆☆>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방송한다. 단, 진행자의 멘트는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며,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 방송사 홈페이지 뉴스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통상의 기사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고,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해당 보도문이 검색되도록 한다. 또한, ◇◇◇◇◇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 사건 각 조정대상보도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되, 상자, 음영, 볼드 처리 등의 방법으로 원보도와 구분되도록 한다.
- 피신청인이 네이버, 다음 등 계약에 의해 이 사건 각 조정대상보도를 공급한 경우, 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조치사항을 전송한다.

동영상 플랫폼 조치

- <◇◇◇◇◇ ▽▽▽▽▽>(지역방송)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각 조정대상보도의 더보기 설명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
- <◎◎◎◎◎>(본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한다.